



성시간의 의미와 자세를 알고 싶어요.

성시간(聖時間)이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시간’이며 ‘기도로 봉헌된 시간’인데요. 겟세마니에서 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거둬 하느님께 봉헌하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립니다.

성시간의 핵심은 예수성심께 공경을 드리고 보속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 특히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죄의 보속을 청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중재기도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의 마음을 풀어 드리고,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자비를 간구하며 상처 받은 예수님의 성심을 위로해 드릴 것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성심을 묵상하며 감사를 올리는 마음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성심의 아픈 고백을 듣는 은총도 청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회개의 응답을 원하시는 그분께 형식적인 기도와 태도를 벗고 진솔한 믿음으로 응답해 드리세요. 이 신심 행위의 축복은 우리 삶 안에 예수님의 수난을 기워 갚으려는 각오를 갖게 하여 주님의 용사로 우뚝 서게 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분처럼 희생,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질을 갖추게 합니다. 통상, 매월 첫 목요일이나 금요일 밤에 성체 현시와 함께 거행되지만, 언제 어느 시간을 구별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을 향한 의탁의 은혜로 참 기쁨을 맛보기 바랍니다.

『소곤소곤 열추 알겠습니다』, p.34~35, 장재봉 신부 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samok.cathms.kr>

하느님 안에 평화

(시편 62,2-9)

시작 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4장 “평화를 주옵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가 영원한 참 평화를 얻게 해주소서!
 - 참 평화이신 주님! 주님을 굳게 믿사오니, 저희가 주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62편 2절에서 3절,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62, 2 내 영혼은 오직 하느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리니
그분에게서 나의 구원이 오기 때문이네.
- 3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 9 백성아, 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 쏟아 놓아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피신처이시다.

- 10 진정 사람이란 숨결일 따름
인간이란 거짓일 따름.
그들을 모두 저울판 위에 올려놓아도
숨결보다 가볍다.
- 11 너희는 강압에 의지하지 말고
강탈에 헛된 희망 두지 마라.
재산이 는다 하여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 12 하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바
내가 들은 것은 이 두 가지.
능력이 하느님께 있다는 것.
- 13 그리고 주님, 당신께는 자애가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십니다.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에 의심을 품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또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후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각자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현존방법(5가지)

1.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 우리가 미사 때 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 우리는 성경말씀을 읽어내려 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3. 상호간의 사랑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눌 때 그 속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며,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4.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현존하시는 하느님
- 나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5. 교계제도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은 하느님 당신께서 가장 쉽게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 끼아라 루빅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4장 “평화를 주옵소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안에 부부가 함께 하는 공동체 |

- 신안동본당 구역분과장 이광희(안젤라) -

신안동본당은 1991년 6월 28일 봉곡동성당에서 분가하여 지난해 본당 설립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분가할 당시 허허벌판에 임시 성전이 세워져 비가 오거나 추운 날이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임시성전을 사용해오다 1994년 6월 6일 새 성전이 봉헌되었고, 신도시 조성으로 많은 신자가 전입하였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젊은 신자가 많아 성당의 큰 행사에 앞장서서 일을 해나갑니다. 그 때문인지 항상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쳐 생명력이있는 성당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소공동체 모임도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9개 구역에서 59개 소공동체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금요일 저녁 미사 후 소공동체장 모임이 있고 올해 3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 전 구역장과 소공동체장 및 반원들이 참석하여 가정지향 미사를 봉헌하고 있으며 1, 2반 반원들은 미사 후 간단한 다과회를 마련하여 서로 소통하고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참여 의지를 다지는 기도도 바쳤습니다.

4구역 3반은 부부가 함께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반원들은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하여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저녁 8시면 각 가정을 돌아가며 모임을 합니다. 어려운 반원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며,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의 손길을 베풁니다. 반장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참석 독려로 차츰 반원들도 조금씩 늘어나니, 반원들은 모두 매월 소공동체 모임 날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시며 친교의 모범이신 삼위일체의 하느님! 초대 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소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실천하여 친교와 봉사와 증거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의 은사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복음 선포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